

## ●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

### 시나가와의 횡혈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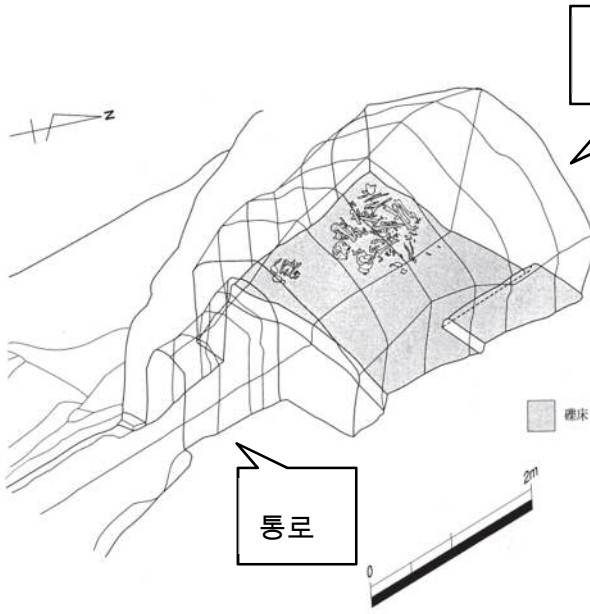
횡혈묘란?

시나가와의 횡혈묘

횡혈묘는 5세기 말~7세기대에 산비탈이나 벼랑에 가로로 구멍을 파서 축조한 매장 시설로, 몇 개를 밀집시켜 조성되었습니다. 제사를 지낸 곳으로 추정되는 입구 앞 영역, 매장 공간으로 통하는 통로, 유해를 안치하는 매장 공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매장 공간의 형태는 다양한데,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매장 공간의 바닥에는 잔돌, 숯 또는 조개껍데기를 깔고, 관이나 대(臺)를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.

횡혈묘에 매장된 사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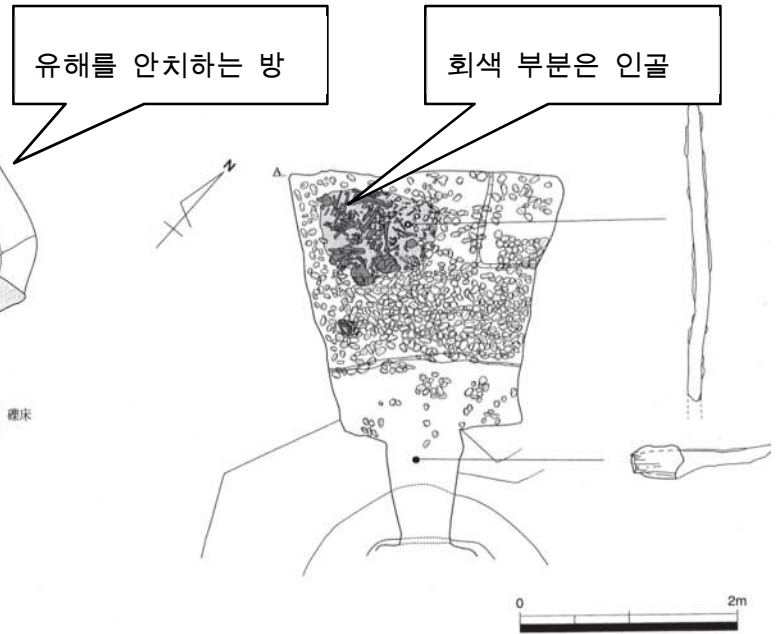
횡혈묘에서는 수 명에서 수십 명 분의 인골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는 하나의 매장 시설에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매장되었기 때문입니다. 인골을 분석하면, 성인 남성은 물론 성인 여성이나 미성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족묘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

▲횡혈묘 모식도

시나가와에는 미나미시나가와  
 횡혈묘군(1960년 조사) 및 오이카네코야마  
 횡혈묘군(2000년 조사)이 있습니다.  
 미나미시나가와 횡혈묘군: 도쿄도 시나가와구  
 미나미시나가와의 제임스 사카우에에서  
 발견된 횡혈묘. 인골과 철제 팔찌 파편이  
 출토되었습니다. 이 횡혈묘군은 같은 시기에  
 영위된 오이카시마 유적 부근에 있다는  
 점으로 보아,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 
 짐작됩니다.

오이카네코야마 횡혈묘군: 도쿄도 시나가와구



▲오이카네코야마 횡혈묘군의 제 1 호 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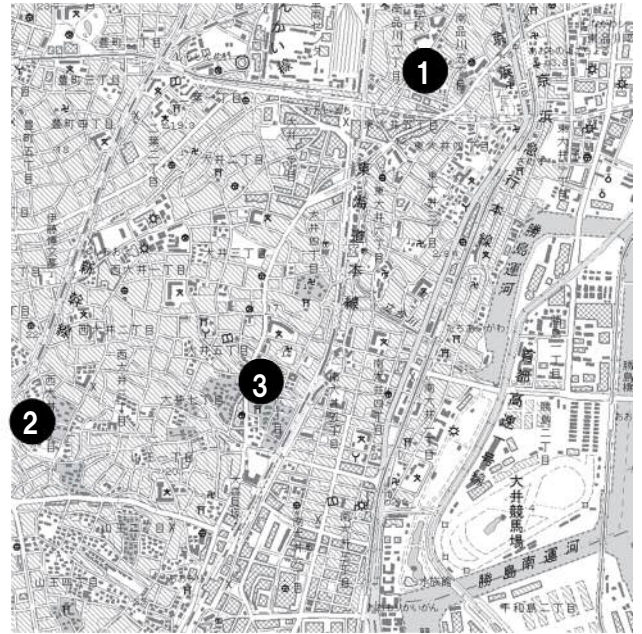
니시오이 4초메에 있으며, 3기의 횡혈묘가  
 발견되었습니다. 그 북동쪽 약 2.5km  
 지점에는 약 40기의 횡혈묘가 구성되어  
 있습니다. 7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 
 추정되며, 제1호·제3호 묘에서 발견된 인골은  
 매장되었을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고  
 있었습니다.

제1호 묘에서는 총 8명 분의 인골이  
 발견되었습니다. 이들 인골은 의도적으로  
 옮겨져, 한군데에 모여져 있었습니다. 이는  
 새로운 유해를 매장할 때에 이미 매장된  
 사람의 뼈를 정리한 뒤 매장했기 때문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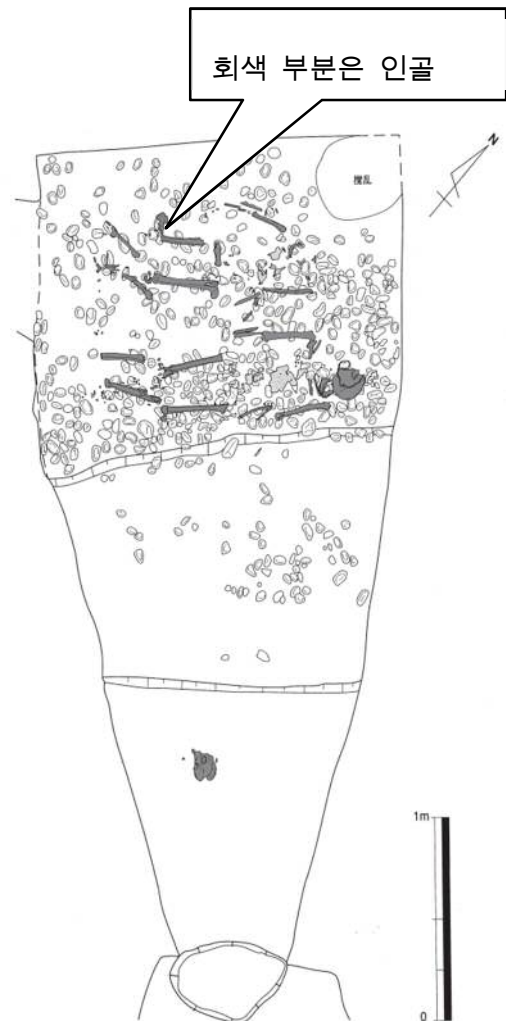
한편, 제3호 묘는 뼈를 정리하지 않고

새로운 유해를 매장했습니다.

또한 제2호 묘에서는 바닥에 깔린 잔돌에 회반죽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. 매장 공간 전체에 회반죽을 칠한 뒤 굳혀서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



1. 미나미시나가와 횡혈묘군
2. 오이카네코야마 횡혈묘군
3. 오이카시마 유적(현 시나가와 역사관)



▲오이카네코야마 횡혈묘군의 제 3 호 묘